

# 핀란드의 대학교육 동향

정진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핀란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노키아(Nokia)가 있는 나라, 자일 리톨을 개발한 건치 국가,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사우나로 유명한 나라, 산타클로스가 살고 있는 나라 등일 것이다. 핀란드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이미지에 더하여 다음의 몇 가지 지표들은 우리가 왜 핀란드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 IMD 경쟁력순위 2003~2005년 1위, 2005년 대학교육경쟁력 1위, 교육제도 경쟁력 1위
- PISA 2003 수학 2위, 읽기 1위, 과학 1위, 문제해결 3위
- 상해 교통대 세계 500대 대학(2004)에 5개 대학 포함

전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그리고 나머지 10%가 호수로 이루어진 인구 520만 명의 작은 나라 핀란드가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핀란드가 어떠한 고등교육제도를 갖고 있는지, 대학교육 현황은 어떠한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교육이 어떠한 협력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 교육제도

핀란드의 교육은 유치원교육(pre-school education, 6세)에서 출발하여 의무교육은 7~16세까지 9년 동안 종합

학교(comprehensive schools)에서 실시되는 기본교육(basic education)을 통해 이루어지고, 기본교육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10학년 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교육을 마치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등교육기관에 입학하게 된다. 중등교육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일반학교(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s)와 각종 자격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직업학교(vocational institutions)가 있다. 기본교육 이후의 중등교육은 16~19세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진다.

중등교육의 연장선에서 일반적으로 19세부터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은 대학(university)과 폴리테크닉(polytechnic)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어떤 정부 부처 소속의 교육기관을 셈하였느냐의 차이로 보인다. 핀란드에는 모두 21개의 대학과 31개의 폴리테크닉이 있다.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 소속이지만,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산하에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ce College),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산하에 경찰대학교(Police College of Finland), 그리고 알랜드 제도(Åland Islands) 자치구 산하에 알랜드폴리테크닉(Åland Polytechnic)이 있다(〈표 1〉 참조).

교육부에 소속된 20개의 대학은 10개의 종합대학(multi-faculty universities)과 10개의 특수대학(specialist institutions)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특수대학은 3개의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3개의 경제·경영대학(schools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그리고 4개의 예술대학(art academies)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핀란드의 고등교육기관 현황

소속 구분	교육부	국방부	내무부	자치구	계
대학	20	1	0	0	21
폴리테크닉	29	0	1	1	31
계	49	1	1	1	52

핀란드 교육의 또 다른 한 축은 성인교육(adult education) 또는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이다. 각 고등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원(centre of continuing education)이 설치되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성인교육기관들과의 협조 아래 개방대학(open university)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개방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학위가 수여되지는 않지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수업의 1/3을 이수하게 되면 정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II. 고등교육

핀란드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국공립으로 대학과 폴리테크닉의 역할은 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대학법(university act)과 폴리테크닉법(polytechnic act)에 따르

면 대학의 주된 역할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인 교육인 반면, 폴리테크닉은 산업사회 요구 맞춤형 직업지향 고등교육 제공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다.

1640년 투르쿠 왕립아카데미(Royal Academy of Turku)를 시작으로 설립된 핀란드의 모든 대학에서는 학사·석사·박사 학위의 수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학위제도 1990년대 초반부터 개혁작업이 시작되어 2005년 정립되었다. 새롭게 정립된 학위는 소위 2개의 층으로 구성된 학위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로 구성된다.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80학점(전일제 3년 소요)을 이수해야 하고, 법학과 약학 분야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수여되는 학위의 명칭은 'kandidaatti/kandidat' 이다.<sup>1)</sup> 한편 법학학위는 'oikeusnotaari/rättsnotarie', 약학학위는 'farmaseutti/farmaceut' 로 명명된다.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학점(전일제 2년 소요)을 이수해야 하고, 수여되는 학위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maisteri/magister' 로 명명된다. 이외 학위의 명칭으로는 'insinoööri/diplomingenjör(공학)', 'proviisori/ provisor(약학)', 'arkkitehti/arkitekt(건축학)', 'lisensiaatti/licentiat(의학, 수의학, 치의학)' 등이다. 의학과 치의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바로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은 최소 360학점(전일제 6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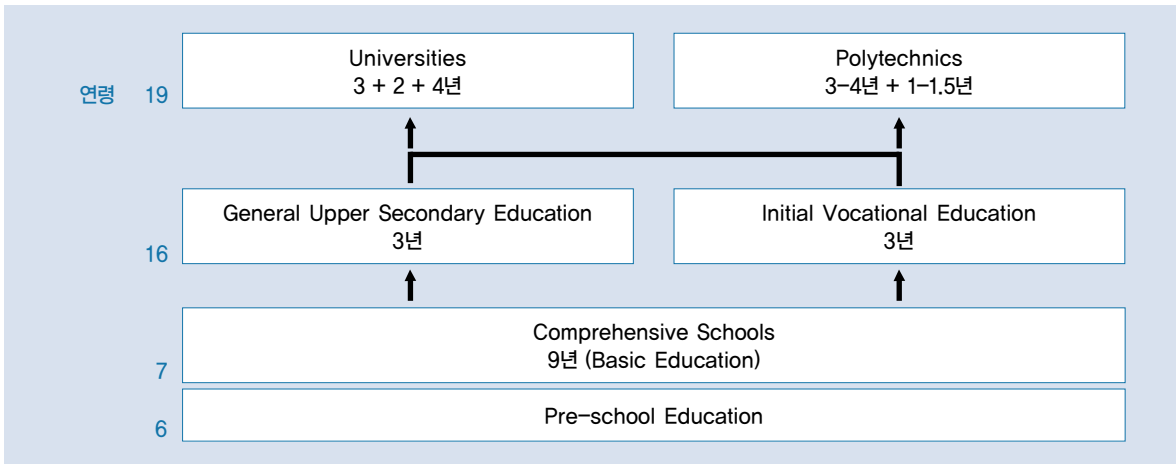


그림 1. 핀란드의 교육제도

1) 1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수업시간은 1,600시간으로 이는 60학점에 해당한다. 학점체계는 유럽학점체계(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ECTS)와 동일하다.

을 이수해야 하고, 치의학은 300학점(전일제 5년 소요)을 이수하여야 한다. 석사 이후의 학위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박사 전 단계의 학위로 'lisensiaatti/licentiat'는 2년이 소요되고, 박사학위(doctoral degree)는 대략 4년 또는 'lisensiaatti/licentiat' 취득 후 2년이 소요된다.

핀란드의 폴리테크닉은 1991년부터 시범 운영되었고, 과거 직업전문학교(vocational college)들이 합쳐져 1996년 8월 최초로 폴리테크닉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2003년에 공포된 폴리테크닉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다. 폴리테크닉에서는 주로 공학, 경영, 보건 분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사학위는 학문분야에 따라 180학점, 210학점, 240학점(전일제 3~4년 소요)을 이수해야 하고, 수여되는 학위의 명칭은 ammattikorkeakoulututkinto/yrkeshögskoleexamen이다. 한편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데,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60학점 또는 90학점(전일제 1~1.5년 소요)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수여되는 학위의 명칭은 'ylempi ammattikorkeakoulututkinto/högryrkeshögskoleexamen'이다.

핀란드의 경우 학령기 학생들(19~21세) 가운데 약 65%의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어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은 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 현재 약 174,000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고, 83,000명이 개방대학에 그리고 129,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폴리테크닉에 재학하고 있다. 폴리테크닉은 1997년 재학생 수가 28,500명이었는데, 이후 급격한 성장을 하여 2003년 말 졸업생 수는 102,000명에 달하였다.

### Ⅲ. 대학교육

핀란드의 대학은 국방부의 감독을 받는 국방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교육부의 감독을 받고, 교육부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2/3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국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연구할

동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자율권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의 운영은 5년을 임기로 하는 총장(Rector)이 의장으로 있는 경영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에서 맡는다. 이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운영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집행의 계획과 예산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업과 연구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교수에게 있다. 수업과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교수위원회(faculty council)에서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는 수업과 연구 담당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2~3년을 임기로 교수위원회에서 선출되는 학장(dean)은 수업 및 연구와 관련된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최근 들어 산학협동이 강조됨에 따라 산업계 인사들이 대학경영을 위한 각종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핀란드 대학에서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제공된다. 한편 북부 핀란드 지방의 경우 사미(Saami)어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핀란드 대학들에서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 수의 수업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다.

핀란드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학문분야는 크게 20개 분야로 구분된다: 신학; 인문학; 법학; 사회과학; 경제학; 심리학; 교육학; 자연과학; 농·임학; 체육학; 공학; 의학; 치의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음악학; 미술·디자인학; 예술학; 연극·무용학. 학생선발은 대학별로 이루어 지는데,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입학시험을 치루고 있다. 대략 학령인구의 1/3이 대학에 진학한다.

학위는 일반적으로 1개의 주전공, 그리고 1개 이상의 부전공으로 구성된다. 한편 과목별로 3단계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데, 초급과목(basic or introductory studies), 중급과목(intermediate studies), 그리고 고급과목(advanced studies)이 그것이다. 학사학위 과정은 일반적으로 주전공의 초급과목과 중급과목, 학사학위 논문, 부전공 과목, 언어 과목으로 구성되고, 석사학위 과정은 학사학위 과정에 더하여 고급과목과 석사논문으로 구성된다. 일부 학위의 경우 현장실습이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핀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초연구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핀란드 R&D(research & development)의 대략 1/4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 모두를 담당하는 교수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인력이 채용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이 연구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핀란드에는 현재 120개 이상의 대학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대학원은 여러 대학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원은 대학, 산업계, 그리고 연구소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 기준 교육부 산하 20개 대학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핀란드 대학 주요 현황

구분	대학명	설립년도	캠퍼스	학생 수	외국학생 수	학위취득자 수(2005)	
						석사	박사
Multi-faculty U	Åbo Akademi University	1918	Åbo, Vasa, Jakobstad	8,000	650	504	70
	U of Helsinki	1640	Helsinki 시내 및 교외	38,233	2,159	2,322	396
	U of Joensuu	1969	Joensuu, Savonlinna, Ilomantsi	8,236	553	700	54
	U of Jyväskylä	1934 Jyväskylä College of Education; 1966 U of Jyväskylä	Jyväskylä, Kokkola Ilomantsi	16,210	741	1,346	109
	U of Kuopio	1966	Kuopio	6,500	300	450	89
	U of Lapland	1979	Rovaniemi, Kemi	4,700	400	397	18
	U of Oulu	1958	Oulu, Kajaani, Kemi, Kuusamo, Nivala, Sodankylä, Hailuoto, Kilpisjärvi, Oulujärvi	16,000	500	1,333	130
	U of Tampere	1925 Citizens' College in Helsinki; 1930 School of Social Sciences; 1960 relocated to Tampere; 1966 U of Tampere	Tampere, Hämeenlinna, Seinäjoki, Pori	17,600	800	1,050	105
	U of Turku	1920	Turku, Rauma, Pori, Piikkiö, Nauvo, Salo, Utsjoki, Kuressaare	18,048	1,094	1,085	137
	U of Vaasa	1968	Vaasa	5,150	330	299	16
Schools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HANKEN Swedish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1909	Helsinki, Vaasa	2,400	130	240	15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1911	Helsinki, Mikkeli	4,000	180	379	19
	Turku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1950	Turku, Pori	2,279	145	226	8
U of Technology	Helsinki U of Technology	1849 Helsinki Technical School; 1908 Helsinki U of Technology	Helsinki	15,166	1,096	1,017	150
	Lappeenranta U of Technology	1969	Lappeenranta	5,500	260	491	35
	Tampere U of Technology	1972	Tampere, Pori, Hyvinkää, Jalasjärvi, Kankaanpää, Kokkola, Lahti, Nastola, Rauma, Seinäjoki, Valkeakoski, Vammala	12,642	940	742	65
Art academies	Finnish Academy of Fine Arts	1848; university status since 1993	Helsinki	285	63	24	2
	Sibelius Academy	1882	Helsinki, Kuopio, Seinäjoki	1,600	220	133	11
	Theatre Academy	1979	Helsinki, Tampere	405	18	65	2
	U of Arts and Design Helsinki UIAH	1871; university status since 1973	Helsinki	1,816	275	158	10

\* 자료 : CIMO(2006).

종합대학과 공과대학에 비해 경제·경영대학과 예술대학은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종합대학의 규모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 4,700~38,233명으로 학교당 평균 14,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은 헬싱키대학교로 40,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공과대학의 규모는 평균 11,000여 명, 경제·경영대학은 3,000여 명, 그리고 예술대학은 1,000여 명 수준이다. 가장 규모가 작은 대학은 핀란드 예술학교(Finnish Academy of Fine Arts)로 학생 수는 300명 미만이다. 외국인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6% 정도지만, 예술대학의 경우에는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

각 대학별로 제공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종합대학에서는 다양한 학문분야가 제공되는 반면, 경제·경영대학은 경제학을 중심으로, 공과대학은 공학을 중심으로, 예술대학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예술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분야를 개설하고 있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가장 많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은 경제학이고, 체육학은 유베스쿨래대학교(U of Jyväskylä), 수의학은 헬싱키대학교(U of Helsinki), 그리고 음악학은 시벨리우스 아카데미(Sibelius Academy)에서만 개설하고 있다.

#### IV. 협력전략

“핀란드의 국가전략은 핀란드를 세계 수준의 지식사회

표 3. 핀란드 대학별 학문분야 개설 현황

학교명 학문분야	Abo	Helsinki	Joensuu	Jyväskylä	Kuopio	Lapland	Oulu	Tampere	Turku	Vaasa	HANKEN	HSE	TSEBA	Helsinki U of Tech	Lappeenranta U of Tech	Tampere U of Tech	Finnish	Sibelius	Theatre	UIAH
신학	●	●	●																	
인문학	●	●	●	●			●	●	●	●										
법학	●	●				●			●											
사회과학	●	●	●	●	●	●		●	●	●										
경제학	●			●	●	●	●	●		●	●	●	●		●					
심리학	●	●	●	●				●												
교육학	●	●	●	●		●	●	●	●											
자연과학	●	●	●	●	●		●	●	●											
농·임학		●	●																	
체육학				●																
공학	●						●			●				●	●	●				
의학		●		●	●		●	●	●											
치의학		●					●		●											
보건학	●			●	●		●	●	●											
수의학		●																		
약학	●	●		●	●															
음악학																		●		
미술·디자인학						●														●
연극·무용학								●											●	
예술학																	●			●

\* 자료 : CIMO(2006), p. 54.

로 개발하는 데 있다”(CIMO, 2007, p. 3).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핀란드는 최근 R&D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고, 향후 몇 년 이내에 GDP의 4%를 R&D에 사용할 계획이다. R&D에 대한 투자로 인해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연구 결과의 수준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핀란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R&D에 대한 투자 증대 이외에 핀란드가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으로 핀란드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취급되고 있는 ‘협력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이 ‘협력 마인드’가 핀란드 대학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활동의 첫 번째는 산학협력이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노키아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1973년 30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노키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데 있어 그 밑거름은 다름 아닌 핀란드의 우수한 교육력에 있었다. 무료 교육으로 인해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졌고, 대학과 폴리테크닉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발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노키아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오울루(Oulu)시는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500km 가량 떨어진 인구 13만 명의 중소도시이다. 이 도시는 전통적으로 타르(tar)와 연어를 생산하던 도시였지만, 현재는 세계 최고의 ICT 허브로, 1999년 ‘오울루 테크노폴리스’란 이름으로 도시가 핀란드 주식시장에 상장된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기업도시이다. 이러한 배경의 중심에 오울루 대학교가 있다. 1965년 오울루대학교(University of Oulu)에 전기·정보공학과(department of electr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가 설치되면서, 당시 학과 내의 젊고 실력 있는 교수진들은 ICT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지식공유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자들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 오울루지역에 최초로 테크노빌리지가 구축되었고, 이를 통해 노키아는 1990년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대학의 연구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대학이 설립 당시부터 국제적인 수준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애쓴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전략은 현재에서 핀란드의 대학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

핀란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활동의 두 번째는 학문분야 간 그리고 학교 간 협력이다.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삶의 질 또는 웰빙 분야이다. 웰빙은 단순히 건강·복지 등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웰빙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간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간학문적인 협력의 대표적인 예로 쿠오피오대학교(University of Kuopio)에 설치된 쿠오피오복지연구센터(Kuopio Welfare Research Centre, KWRC)를 들 수 있다. KWRC에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사회과학; 약학; 의학; 컴퓨터공학; 환경학; 경제학 등.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통합하여 혁신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간학문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간 협력의 예로 HYVITE라는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효율적인 독거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 팀페레대학교(University of



Tempere), 템페레공과대학교(Tampere University of Technology), TAMK 폴리테크닉(TAM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PIRAMK 폴리테크닉(PIRAM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이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강력한 연구기반을 소유하고 있는 대학들은 각종 연구기법, 공학 등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폴리테크닉은 연구 결과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효과적인 노인간호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학교 간 협력은 연구 결과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과 폴리테크닉 간의 학문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핀란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활동의 세 번째는 국가 간 협력이다. 핀란드는 국토의 70%가 산림이다. 과거 저개발국에서 산업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는 산림자원이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인해 핀란드는 산림자원의 활용, 산림 관리, 산림생태학 등의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산림개발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요인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 산림자원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는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방법으로 산림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뿐만 아니라 핀란드의 산림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엔수대학교(Universit of Joensuu)는 인접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또 다른 방식의 국제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9개 대학들과 공동으로 핀란드-러시아 크로스보더 유니버시티(Finland-Russian Cross-Border University)를 설립한 것이다. 이 대학에서는 현재 6개 전공에 석사학위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이 국가 간 공동학위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외국 학생들이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의 결과라고 하겠다.

## V. 고등교육의 질 보증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은 1985년 교육부의 KOTA 위원회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기관별, 전공별 각종 자원 및 실적을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KOTA가 개발되었고, 폴리테크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AMKOTA가 개발되었다. 한편 핀란드 정부는 1986년부터 대학 스스로 자체평가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요구하였다.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질 보증은 핀란드의 고등교육 및 연구 정책에 있어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핀란드의 모든 대학과 폴리테크닉은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각 대학과 폴리테크닉의 평가 수행을 돕기 위해 1995년 교육부 산하에 핀란드고등교육평가위원회(Finnish Higher Education Evaluation Council, FHEEC, 이하 '평가위원회')가 설립되어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핀란드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또한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자체 평가활동에 대한 외부 감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평가위원회이고, 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핀란드학술원(Academy of Finland, 이하 '학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평가조직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위원회의 평가활동에서 강조점은 교육기관의 책무성보다 얼마나 성과가 증대되었는지에 있다. 평가위원회에서 통제보다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교육기관들이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고, KOTA와 AMKOTA 데이터베이스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평가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모형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평가위원회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체평가, 외부동료평가, 현지방문,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이점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자국민들만이 아닌 외국인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국제적인 평가팀을 구성한다는 점과 다양한 수준의 벤치마킹 기법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폴리테크닉의 본부 행정 조직과 도서관을 평가함에 있어 외국의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였고, 언어 교육 및 일 기반학습(work-based learning)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핀란드 내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가활동은 재정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술원에 의한 평가는 재정 지원과 직결되고 주로 국제적인 평가팀에 의해 평가된다는 특징이 있다.

핀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에 있어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대학경영조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폴리테크닉의 경우 대학경영조직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는 대학과 폴리테크닉 연합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모든 평가의 각 단계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평가활동에 졸업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재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보다 드물기는 하지만, 현재 몇몇 교육기관에서는 졸업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체제를 이미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활동에 어떠한 준거가 사용되었는지는 결과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대중에 공지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활동을 통해 각 교육기관이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었는지를 판단하고, 향후 개선점에 대한 제안을 하며, 모범적인 사례들을 강조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는 재평가가 필요한지, 또는 평가준거를 충족하였는지를 결정하고, 평가준거를 충족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부한다.

핀란드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는 국제적인 평가팀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준거의 설정에 있어서도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고려하고 있으며, ENQA(European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Centre for International Mobility. 2006. "Universities in Finland". Helsinki, Finland: Centre for International Mobility.
- Centre for International Mobility. 2007. "Higher education in Finland". Helsinki, Finland: Centre for International Mobility.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07. *Higher education in Finland*. Retrieved December 6, 2007 from <http://www.oph.fi/english/txtpage.asp?path=447,55149,4951,16041,16584>
- Ministry of Education, Finland. 2005. "OECD thematic review of tertiary education: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Finland". Helsinki, Finland: Helsinki University Press.
- Ministry of Education, Finland. 2007. *University education in Finland*. Retrieved December 6, 2007 from <http://www.minedu.fi/OPM/Koulutus/yliopistokoulutus/?lang=en>

## 필자 약력

### 정진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미국 텍사스 A&M대학에서 HRD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